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더 촘촘한 수사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3개월...광주·전남 경찰 1분기 사건 들여다보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뒤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는 늦어지는 반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과거보다 엄격하게 경찰 수사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경찰의 미흡한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89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314건)에 견줘 22.4% 감소했다.

경찰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불송치 결정 권한을 갖게 된 뒤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한 사건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까지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었다.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사건 조사기록만 '송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90일 안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올 들어서만 광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 중 72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광주 경찰이 지난 1월 불송치했던 1032건 중 17건에 그쳤던 검찰의 재수사 요구는 불송치 사건이 743건으로 줄어든 2월에는 오히려 3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3월에도 1188건의 불송치 사건 중 25건의 재수사 요구가 이뤄졌다.

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크게 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1분기(1~3월)에만 278건으로, 전체 송치 사건(4898건)의 5.6%다.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 20건 중 1건 이상 수사가 미흡하니 추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1분기의 경우 송치 사건은 1869건(1월)→1169건(2월)→1860건(3월) 등으로 비슷한 반면,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은 67건(1월)→86건(2월)→125건(3월) 등으로 급증세라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경찰 사건 처리 속도 늦어지고

검찰 재수사·보완수사 요구 늘어

송치사건 중 5.6% 278건 보완 요구

불송치 사건 중 72건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도 21건...수사력 미흡 우려

전남경찰은 현황 파악조차 안해

당장,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 광주시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수사에 들어가 반 년 만에 송치해놓고도 혐의 입증에 위한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력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지난해 6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 일대에서 5명의 부상자를 낸 교통사고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교통사고 관련 가족들이 요청한 지문감식, 혈흔 DNA 검사, 시뮬레이션 검사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인권 침해·수사권 남용 여부 등을 파악해 요구할 수 있는 시정조치도 1분기에만 21건에 달했다.

전남경찰은 이같은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경찰의 경우 지난 1월 검찰에 1915건을 송치해 지난해 같은 기간 2863건을 검찰에 넘긴 것보다 33.1%나 줄었음에도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책임있는 수사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이 지난 1월 전국 경찰청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 사건을 집계해 발표했다는데도, 전남청만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미공개해 미흡한 수사력을 감추려는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A씨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는 미흡한 초동수사의 문제점과 부족한 수사력 등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통강정 만들기 신나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3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옥 한옥체험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전통강정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에 욕설하고 체포과정 폭력 휘둘렀다면?

법원 "현행범 체포 위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모욕죄는 유죄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A씨를 체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등 실제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범행 장소를 이탈하려

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도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체포하는 등 A씨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영장 없는 체포'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A씨

욕설도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A씨를 '현행범 체포'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무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실력으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따라서 A씨가 체포되지 않으려고 반항하다 경찰관을 때린 것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욕설한 혐의(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성용 피의자 신분 소환 농지법 위반 혐의 등 조사

"축구센터 만든다 해서 돈 보냈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기성용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인 기영욱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변경)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기씨 부자는 지난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의 들여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기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주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경찰에서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면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씨 부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기성용이 FC서울 동료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이뤄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경찰에 출석, '검사 결과 전지가격리 유지'라는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에서 석탄 하역작업 노동자 증장비 깔려 1명 사망·1명 중상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석탄 하역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증장비에 깔려 한 명이 숨졌다.

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광양시 금호동 광양항만에서 작업중이던 황운노조 소속 노동자 2명이 불도저 삽에 깔려 이들 중 A(38)씨가 숨지고 B(51)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석탄을 싣고 있던 선박의 창고에서 벽면의 석탄을 긁어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증장비 운전자가 A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39)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공원에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무선조정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음이 심하고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불만을 품고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 체포를 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화가 나 경찰 눈을 때리고 기습을 밀었다. A씨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공무집행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